

가계의 간접투자자산 보유와 관련요인 분석*

성영애(인천대학교 교수)

I. 머리말

소비자에게 저축과 투자행동은 생애소비만족을 위한 중요한 활동임. 미래의 불확실성, 낮은 이자율, 고령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축수단만으로는 미래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활동이 활발해짐.

우리나라에서 간접투자자산이 급증한 것은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간접투자행동을 설명하는 연구는 전무함. 기존의 연구들은 주식, 또는 투자자산 또는 위험자산 전체(이 경우에도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함)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임.

본 연구는 간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함. 또한 간접투자 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른지 살펴보고 유형별 펀드선택행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본 연구는 간접투자자를 이해하고 투자설계 및 상담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II. 관련연구의 고찰

1. 저축과 투자에 관한 이론적 모델

저축과 투자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델에는 다기간 소비자행동이론, 생애주기가설 및 평생소득가설 등이 있음. 이상의 이론은 소비자가 현재 소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축적하는 행동에 대한 유용한 설명의 틀을 제공하여 줌. 그러나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즉 소비와 저축을 이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즉 모든 저축수단은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는 것을 가정함(Bryant, 1990).

여러 투자대안을 선택하는 투자자의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이론임. 이에 의하면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수준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결정됨. 또한 위험회피도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임(Friend & Blume, 1975).

최근에는 전통적인 가계자산선택이론에 대해 또 다른 변인들을 도입하여 설명을 높여주고 있는데, 예비적 자산선택행동이 그 예임(유경원, 2004). 또한 행동주의 생애주기가설

*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Behavioral life-cycle hypothesis)에 의하면 소비자의 저축 및 투자행동은 위에서 언급한 변수 이외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Zhong & Xiao, 1995).

이상의 이론들은 소비자의 투자행동에는 소득과 자산을 포함하는 자원, 이자율, 상품의 가격(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선호, 위험성향, 불확실성, 저축목적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침.

2. 투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연구에는 문숙재·양정선(1996), 이은실·최현자(1998), 황덕순·주문자(1999), 박주영·최현자(1999), 김진영(2002), 박근주·이기춘(2002), 여운경(2003), 여운경·정순희(2004), 민재형·구기동(2004), 유경원(2004), 최지은·정순희·여운경(2005), 김재철(2005), 배미경(2006), 양준모·최진석(2007) 등이 있음.

위의 실증적 연구들은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금융자산, 자산구성, 주식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부분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나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 조사를 이용하고 있었음. 위에서 언급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다양한 실증모형을 검증하고 있음. 모형검증은 회귀분석, 로짓분석, 토빗분석 등을 주로 이용함.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 가계의 간접투자자산 보유여부, 보유규모 및 보유비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 가계의 간접투자자산 유형별 보유여부, 보유규모 및 보유비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 가계의 간접투자자산 보유여부, 보유규모 및 보유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4 : 가계의 적립식펀드와 거치식펀드의 보유여부, 보유규모 및 보유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변수의 정의 및 실증모형

1) 종속변수

간접투자자산 유형이란 적립식/거치식, 국내투자/해외투자 및 주식형/채권형/혼합형/기타/자산관리계좌/개인연금펀드로 분류한 것임. 간접투자자산 보유비중이란 금융자산에서 해당

펀드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독립변수

간접투자자산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특성변수, 가계특성변수, 가계재무변수 및 심리적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개인특성변수에는 연령, 성별, 학력, 직업을 포함함. 가계특성변수에는 거주지역, 가구원수, 취업자수, 자녀수, 가구구성, 입주형태를 포함함. 가계재무변수에는 가계소득, 금융자산, 실물자산규모를 포함함. 심리적 변수에는 저축목적, 투자계획기간, 3년 후 경기전망, 부동산가격전망, 금리전망, 주가전망 및 소득전망, 위험성향을 포함하였음.

3) 실증모형

본 연구의 실증모형은 다음과 같음.

펀드보유여부, 규모 및 비중 = $f(\text{개인특성변수, 가계특성변수, 가계재무변수, 심리적 변수})$

위의 모형에서 펀드보유여부는 로짓(logit)모형을, 펀드보유규모 및 비중은 토빗(tobit)모형을 적용함.

3. 연구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2007년에 투자자교육재단에서 실시한 간접투자자조사의 원자료임. 이 조사에서는 총 3,500명을 조사하였으나, 본 연구는 가계의 간접투자자산 보유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에 미혼인 응답자를 제외하고, 기혼자 중에서 가계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관여한다고 응답한 가구주나 그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따라서 본 연구는 2,3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4. 표본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표 1>과 같음.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가 응답한 경우가 55.3%이고 가구주가 응답한 경우가 44.7%임. <표 2>는 심리적 특성을 요약한 것임.

IV. 연구결과

1. 간접투자자산과 유형별 보유현황

<표 3>에서는 펀드보유율, 펀드규모 및 금융자산대비 펀드비중을 전체표본에 대해 살펴보았음. 또한 펀드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따로 살펴보았음.

전체표본 중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59.4%였음. 펀드유형별로 보유율을 살펴보면 적립식펀드 보유가구의 비율은 57.1%였고, 거치식펀드 보유가구의 비율은 41.2%로 나타나 적립식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더 많았음. 국내펀드의 보유가구비율은 51.9%였고 해외펀드 보유가구의 비율은 27.6%였음. 펀드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나누어 보면 주식형을 보유하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아서 39.7%의 가구가 주식형펀드를 보유하고 있었음. 그 다음으로 혼합형펀드 보유가구가 많았고 채권형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5.6%에 불과하였음.

평균 펀드규모는 3,330만원이었고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규모가 5,605만원으로 증가함. 금융자산대비 펀드의 비중은 18%였고 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30%에 이름.

적립식펀드의 보유규모는 1,909만원이었고 펀드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3,214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적립식펀드가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가구의 경우는 10%이고 펀드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17%임.

거치식펀드의 보유규모는 1,420만원으로 나타남. 펀드보유가구만을 대상으로 계산하여 보면 2,391만원으로 거치식펀드의 보유규모가 적립식펀드의 보유규모보다 작은 편이었음. 거치식펀드가 금융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가구, 펀드보유가구 각각 8%, 13% 정도였음.

국내펀드의 보유규모는 전체평균 2,469만원, 펀드보유가구 평균 4,155만원이었고, 이 규모가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와 22%였음.

해외펀드의 전체평균 보유규모는 861만원, 펀드보유가구의 평균보유규모는 1,450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금융자산의 5%와 9%에 해당되는 금액임.

주식형펀드의 전체 보유규모는 1,617만원인데 펀드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2,723만원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 17%임.

혼합형펀드의 보유규모는 전체가구의 경우 1,074만원이고 펀드보유자가구만을 보면 1,809만원이며, 이 금액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 10%임.

그 다음으로 기타펀드, 채권형펀드, 개인연금펀드, 자산관리계좌 순으로 보유규모가 컸으나 보유비중이 작음. 중위값을 보면 펀드보유가구라고 해도 과반수이상이 주식형펀드 이외의 펀

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2. 간접투자자산 보유여부, 보유규모 및 보유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펀드

펀드보유여부와 규모, 비중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로짓분석과 토빗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음.

(1) 펀드보유여부

펀드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취업자수, 입주형태, 가계소득, 금융자산, 저축목적, 투자계획기간, 3년 후 부동산가격전망, 주가전망, 소득전망 및 위험성향으로 나타남.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기술, 판매, 서비스직 봉급생활자나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자영업자보다는 직업이 없는 경우 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전월세거주자보다는 자가거주자의 경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펀드투자 가능성이 더 높아짐. 반면 거주지역, 가구원수, 자녀수, 가구구성 및 실물자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저축목적이 주택마련인 경우, 투자계획기간이 없는 경우보다는 길어질수록, 부동산가격전망이 비관적인 경우, 주가전망은 낙관적인 경우, 소득전망은 비관적일수록, 위험성향이 높을수록 펀드투자의 확률이 더 높아짐. 반면 경기전망, 금리전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펀드보유규모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보다는 대학원이상인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녀수는 적을수록, 부모 및 소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취업자녀로 구성된 가구보다는 1인가계 및 기타가구의 경우, 전월세 및 무상거주자보다는 자가거주자의 경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관혼상제비가 저축목적인 가구보다는 기타의 목적을 가진 경우, 투자계획기간이 있는 경우, 위험성향이 높은 경우 펀드투자규모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었음.

펀드보유여부와 규모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학력, 입주형태, 금융자산, 저축목

적, 투자계획기간 및 위험성향인 것으로 나타남. 영향의 방향도 대체로 일치함.

반면 펀드보유여부에는 영향을 미쳤던 성별, 직업, 취업자수, 가계소득, 여러 가지 전망변수들은 펀드보유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거주지역, 실물자산, 경기전망, 금리전망은 펀드보유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보유규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펀드보유비중

펀드보유비중에는 모든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적립식펀드와 거치식펀드

(1) 적립식펀드

<표 5>에서 적립식펀드 보유여부와 규모, 비중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음.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취업자수, 입주형태, 가계소득, 금융자산, 투자계획기간, 부동산가격전망, 주가전망, 소득전망 및 위험성향이 적립식펀드의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적립식펀드의 보유규모에는 연령, 직업, 입주형태, 저축목적, 투자계획기간 및 위험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보유규모에 대한 연령과 직업의 효과는 보유여부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나타남. 즉 적립식펀드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보유할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보유규모는 커지는 경향이 있음. 직업의 경우도 전문직 자영업자는 주부보다는 적립식 펀드를 덜 보유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유하는 경우 보유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적립식펀드 보유비중에는 직업과 실물자산규모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전문자영업자의 펀드보유비중이 더 크며, 실물자산이 많을수록 적립식펀드의 비중이 낮아짐. 나머지 변수들은 보유비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거치식펀드

거치식펀드 보유여부와 규모, 비중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로짓분석과 토빗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음.

거치식펀드의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취업자수, 입주형태, 가계소득, 금융자산, 투자계획기간, 부동산가격전망, 소득전망, 위험성향임.

거치식펀드의 보유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수는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수보다 적음. 연령, 가구원수, 금융자산, 저축목적 및 위험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거치식펀드가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입주형태, 금융자산 및 위험성향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V. 결론

펀드보유의 결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관련됨. 즉 펀드에 가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개인특성, 가계특성, 가계재무특성 및 심리적 특성이 모두 관련됨. 펀드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의 경우도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 펀드가입여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보임. 한편 펀드의 보유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었음. 이는 금융자산대비 펀드의 비중,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에 있어서 펀드보유자간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즉 펀드비중은 투자자 특성에 좌우되지 않음.

적립식펀드와 거치식펀드를 비교하여 보면, 거치식펀드의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립식펀드의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가전망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함. 그러나 영향력의 강도는 적립식펀드의 경우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됨. 보유규모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도 적립식펀드에 더 강하게 나타남.

이상의 결과는 투자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특성, 가구특성, 재무특성과 동시에 심리적 변수를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줌. 또한 거치식펀드보다는 적립식펀드의 경우 가입여부와 가입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특성들이 더 강하게 작용함을 인식하여 투자자특성과 성향에 맞는 펀드의 선택이 되어야 투자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김재철(2005). 가계의 주식보유 비중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OECD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증권연구원.

김진영(2002).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17(1), 47-74.

- 문숙재·양정선(1996). 가계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분석-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09-120.
- 민재형·구기동(2004). 불확실성하에서의 개인의 투자행태 및 투자결정요인, 서강경영논총, 15(2), 111-132.
- 박근주·이기춘(2002). 자산과 부채 보유에 근거한 가계채무전략유형별 가계 포트폴리오의 특성, 소비자학연구, 13(1), 45-73.
- 박주영·최현자(1999). 자산계층별 가계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93-206.
- 배미경(2006).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9(4), 123-139.
- 양준모·최진석(2007). 우리나라 가계의 포트폴리오선택과 Arrow 가성에 관한 실증분석, 계량경제학회, 18(3), 1-32.
- 여운경(2003). 가계투자자산 규모의 결정요인, 소비문화연구, 6(1), 1-17.
- 여운경·정순희(2004). 가계의 주식투자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11-21.
- 유경원(200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선택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185호, 1-33.
- 이은실·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11-122.
- 최지은·정순희·여운경(2005). 소비자의 자산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소비자학연구, 16(1), 55-71.
- 황덕순·주문자(1999). 봉급생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금융자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
- Bryant(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nd & Blume(1975). The demand for risky asse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5(5), 900-922.
- Zhong & Xiao(1995). Determinants of Family Bond and Stock Holdings,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6, 1-8.

<표 1>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성 (N=2,396)

사회경제적 변수	구분	빈도 / 평균(중앙값)	(% 또는 sd)
가구주여부	가구주임	1072	(44.7%)
	배우자임	1324	(55.3%)
연령	20대	115	(4.8%)
	30대	682	(28.5%)
	40대	863	(36.0%)
	50대	553	(23.1%)
	60대	183	(7.6%)
	평균(세)	44.02	(9.32)
성별	남성	1172	(48.9%)
	여성	1224	(51.1%)
학력	중졸 이하	80	(3.3%)
	고졸 이하	609	(25.4%)
	전문대졸 이하	421	(17.6%)
	대졸 이하	1033	(43.1%)
	대학원재학 이상	253	(10.6%)
직업	봉급생활자(전문/관리/사무직)	814	(34.0%)
	봉급생활자(기술/판매서비스/생산직)	396	(16.5%)
	자영업자(판매서비스/생산제조)	395	(16.5%)
	자영업(전문직)/기타	143	(6.0%)
	무직(주부포함)	648	(27.0%)
배우자직업	봉급생활자(전문/관리/사무직)	630	(26.3%)
	봉급생활자(기술/판매서비스/생산직)	423	(17.7%)
	자영업자(판매서비스/생산제조)	329	(13.7%)
	자영업(전문직)/기타	100	(4.2%)
	무직(주부포함)	914	(38.1%)
거주지역	서울/경기/수도권	1442	(60.2%)
	광역시	954	(39.8%)
가구원수(명)		3.71	(1.08)
취업자수(명)		1.59	(.73)
자녀수(명)		1.80	(.82)
가구구성	부부로 구성된 가계	707	(29.5%)
	부모 및 미취업자녀	1261	(52.6%)
	부모 및 취업자녀(소득공동사용)	129	(5.4%)
	부모 및 취업자녀 (자녀소득 공동사용안함)	200	(8.3%)
	1인가계 및 기타	99	(4.1%)
입주형태	자가	1636	(68.3%)
	전세	606	(25.3%)
	월세	110	(4.6%)
	무상거주	44	(1.8%)
가계소득규모(원)		8997.23 (5920)	(13881.10)
금융자산규모(원)		13783.31 (6000)	(24650.90)
실물자산규모(원)		38710.03 (21500)	(57486.00)

<표 2> 표본의 심리적 특성 (N=2,396)

심리적 변수	구분	빈도	(% 또는 sd)
저축목적	자녀교육	787	(32.8%)
	주택마련	432	(18.0%)
	부채상환	307	(12.8%)
	관혼상제비	85	(3.5%)
	노후대비	627	(26.2%)
	기타	243	(10.14%)
투자계획기간	6개월 미만	39	(1.6%)
	6개월-1년 미만	291	(12.1%)
	1년-3년 미만	1236	(51.6%)
	3년-10년 미만	653	(27.3%)
	10년 이상	104	(4.3%)
	계획없음 및 모르겠음	73	(3.1%)
3년 후 경기전망	낙관	1032	(43.1%)
	보통	1031	(43.0%)
	비관	333	(13.9%)
3년 후 부동산가격전망	낙관	1138	(47.5%)
	보통	798	(33.3%)
	비관	460	(19.2%)
3년 후 금리전망	낙관	1146	(47.8%)
	보통	913	(38.1%)
	비관	337	(14.1%)
3년 후 주가전망	낙관	1484	(61.9%)
	보통	691	(28.8%)
	비관	221	(9.2%)
3년 후 소득전망	낙관	1399	(58.4%)
	보통	763	(31.8%)
	비관	234	(9.8%)
위험성향	상당한 투자위험 감수	668	(27.9%)
	평균이상의 투자위험 감수	677	(28.3%)
	평균정도의 투자위험 감수	866	(36.1%)
	최소한의 위험만 감수	185	(7.7%)
	평균	2.24	(.94512)

<표 3> 간접투자유형별 보유현황 (N=2,396)

	펀드보유율 (%)	펀드규모 평균 -표본전체- (만원) (중앙값)	펀드규모 평균 -펀드보유가구- (만원) (중앙값)	금융자산대비 펀드비중 평균 -표본전체- (중앙값)	금융자산대비 펀드비중 평균 -펀드보유가구- (중앙값)
펀드전체	1423(59.4)	3330.29 (240)	5605.08 (1532)	.18 (.06)	.30 (.25)
적립식펀드	1368(57.1)	1909.42 (100)	3213.67 (700)	.10 (.02)	.17 (.13)
거치식펀드	987(41.2)	1420.27 (0)	2391.41 (400)	.08 (0)	.13 (.07)
국내펀드	1243(51.9)	2468.72 (40)	4155.01 (1000)	.13 (.01)	.22 (.15)
해외펀드	661(27.6)	861.21 (0)	1450.07 (0)	.05 (0)	.09 (0)
주식형펀드	951(39.7)	1617.33 (0)	2723.21 (400)	.10 (0)	.17 (.08)
채권형펀드	134(5.6)	205.74 (0)	346.43 (0)	.01 (0)	.01 (0)
혼합형펀드	604(25.2)	1074.27 (0)	1808.82 (0)	.06 (0)	.10 (0)
기타	165(6.9)	348.07 (0)	586.07 (0)	.01 (0)	.02 (0)
자산관리계좌	19(0.8)	37.65 (0)	63.39 (0)	.001 (0)	.002 (0)
개인연금펀드	120(5.0)	45.85 (0)	77.17 (0)	.001 (0)	.002 (0)

<표 4> 펀드 보유여부, 규모 및 비중의 결정요인 (N=2,396)

독립변인		구분	보유 여부	규모	비중
개 인 특 성변수	연령		-.052 ***	.019 ***	-.003
	성별 (기준:여성)	남성	-.631 ***	.069	.016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이하	.892 *	.457	-.029
		전문대졸 이하	1.019 **	.599	.096
		대졸 이하	1.257 ***	.536	-.016
		대학원재학 이상	1.352 ***	.637 *	.004
	직업 (기준:주부/ 무직)	봉급생활자(전문/ 관리/ 사무직)	.001	-.135	-.084
		봉급생활자(기술/ 판매서비스/ 생산직)	-.342 *	-.146	-.011
		자영업자(판매서비스/ 생산제조)	-.425 *	.119	.046
		자영업(전문직)/ 기타	-.247	.014	.061
가 계 특 성변수	거주지역 (기준:광역시)	서울/ 경기/ 수도권	-.034	.078	.044
	가구원수		-.007	.088 *	.030
	취업자수		.325 ***	.024	.011
	자녀수		-.132	-.121 *	-.066
	가구구성 (기준:1인가계 및 기타)	부부로 구성된 가계	-.051	.024	-.006
		부모 및 미취업자녀	.093	-.179	-.029
		부모 및 취업자녀(소득공동사용)	.027	-.272 *	-.052
		부모 및 취업자녀(자녀소득 공동사용안함)	-.182	-.086	.031
	입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274 *	-.215 **	-.047
		월세	-1.284 ***	-.625 **	.107
가 계 재 무변수	가계소득규모		.000 *	.000	.000
	금융자산규모		.000 ***	.000 ***	.000
	실물자산규모		.000	.000	.000
심리적 변수	저축목적 (기준:기타)	자녀교육	.234	-.052	-.002
		주택마련	.473 *	.010	-.006
		부채상환	.028	-.337 *	-.094
		관혼상제비	.418	.127	.065
		노후대비	.203	.080	.074
	투자계획기간 (기준:계획없음 및 모르겠음)	1년 미만	.933 **	.665 *	-.023
		1년-3년 미만	1.090 **	.532	-.021
		3년-10년 미만	1.195 ***	.591 *	-.023
		10년 이상	1.497 ***	.702 *	.024
	3년 후 경기전망 (기준:보통)	낙관	.122	.108	.087
		비관	-.017	-.104	.043
	3년 후 부동산가격전망 (기준:보통)	낙관	-.007	-.056	-.029
		비관	.375 **	.003	-.030
	3년 후 금리전망 (기준:보통)	낙관	-.030	-.028	-.065
		비관	-.171	-.060	-.034
	3년 후 주가전망 (기준:보통)	낙관	.443 ***	.052	.056
		비관	-.365 *	.095	.030
	3년 후 소득전망 (기준:보통)	낙관	-.419 ***	.027	-.060
		비관	.445 *	-.017	-.021
	위험성향		.488 ***	.116 **	.050
상수			-.958	4.884 ***	-1.141 **
모형 카이제곱 / Log Likelihood			569.248 ***	-2372.963	-1964.694
Nagelkerke R ²			.285	-	-

*** p<.001, ** p<.01, * p<.05

<표 5> 적립식펀드 보유여부, 규모 및 비중의 결정요인 (N=2,396)

독립변인		구분	보유 여부	규모	비중
개 인 특 성변수	연령		-.052 ***	.015 **	-.005
	성별 (기준:여성)	남성	-.614 ***	.047	-.044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이하	.982 **	.355	.238
		전문대졸 이하	1.163 **	.325	.212
		대졸 이하	1.395 ***	.426	.222
		대학원재학 이상	1.551 ***	.506	.277
	직업 (기준:주부/ 무직)	봉급생활자(전문/ 관리/ 사무직)	-.012	-.122	-.022
		봉급생활자(기술/ 판매서비스/ 생산직)	-.293	-.115	.067
		자영업자(판매서비스/ 생산제조)	-.394 *	.129	.113
		자영업(전문직)/ 기타	-.435	.338 *	.347 **
가 계 특 성변수	거주지역 (기준:광역시)	서울/ 경기/ 수도권	-.018	.079	.029
	가구원수		.007	.039	.004
	취업자수		.310 ***	.045	.003
	자녀수		-.135	-.104	-.094
	가구구성 (기준:1인가계 및 기타)	부부로 구성된 가계	.006	-.021	-.094
		부모 및 미취업자녀	.193	-.142	-.117
		부모 및 취업자녀(소득공동사용)	.044	-.197	.035
		부모 및 취업자녀(자녀소득 공동사용안함)	-.094	-.301	-.188
	입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258 *	-.266 **	-.049
		월세	-1.169 ***	-.801 ***	.104
가 계 재 무변수		무상거주	-.234	-.426	-.106
	가계소득규모		.000 *	.000	.000
	금융자산규모		.000 ***	.000 ***	.000
심리적 변수		실물자산규모	.000	-.000	-.000 *
	저축목적 (기준:기타)	자녀교육	.115	-.199	-.139
		주택마련	.428	-.098	-.083
		부채상환	-.008	-.484 **	-.198
		관혼상제비	.337	.062	-.028
		노후대비	.080	-.145	-.096
	투자계획기간 (기준:계획없음 및 모르겠음)	1년 미만	.802 *	.819 **	-.146
		1년-3년 미만	.928 **	.745 *	-.065
		3년-10년 미만	1.130 **	.818 **	-.085
		10년 이상	1.375 **	1.024 **	.089
	3년 후 경기전망 (기준:보통)	낙관	.120	.044	.043
		비관	-.008	-.100	.083
	3년 후 부동산가격전망 (기준:보통)	낙관	.019	-.107	-.056
		비관	.385 **	.017	-.004
	3년 후 금리전망 (기준:보통)	낙관	-.022	-.003	-.045
		비관	-.180	-.099	-.050
	3년 후 주가전망 (기준:보통)	낙관	.433 ***	.065	.081
		비관	-.363 *	.124	.047
	3년 후 소득전망 (기준:보통)	낙관	-.387 **	.088	-.002
		비관	.530 ***	-.117	-.106
	위험성향		.455 ***	.096 *	.023
상수			-.993	4.749 ***	-1.410 **
모형 카이제곱 / Log Likelihood			547.793 ***	-2316.155	-1929.002
Nagelkerke R ²			.274	-	-

*** p<.001, ** p<.01, * p<.05

<표 6> 거치식펀드 보유여부, 규모 및 비중의 결정요인 (N=2,396)

독립변인		구분	보유 여부	규모	비중
개 인 특 성변수	연령		-.031 ***	.021 **	.002
	성별 (기준:여성)	남성	-.292 *	.082	.060
	학력 (기준:중졸이하)	고졸 이하	.965 *	.327	-.507
		전문대졸 이하	1.178 **	.568	-.305
		대졸 이하	1.130 **	.451	-.475
		대학원재학 이상	1.259 **	.506	-.539
	직업 (기준:주부/ 무직)	봉급생활자(전문/ 관리/ 사무직)	-.132	-.072	-.078
		봉급생활자(기술/ 판매서비스/ 생산직)	-.291	-.118	-.057
		자영업자(판매서비스/ 생산제조)	-.361 *	.161	.005
		자영업(전문직)/ 기타	-.566 *	-.077	.053
가 계 특 성변수	거주지역 (기준:광역시)	서울/ 경기/ 수도권	-.034	.089	.055
	가구원수		.040	.105 *	.062
	취업자수		.254 **	-.022	-.014
	자녀수		-.064	-.125	-.055
	가구구성 (기준:1인가계 및 기타)	부부로 구성된 가계	-.051	.049	.091
		부모 및 미취업자녀	.059	-.251	.023
		부모 및 취업자녀(소득공동사용)	-.204	-.222	.007
		부모 및 취업자녀(자녀소득 공동사용안함)	-.096	-.053	.183
	입주형태 (기준:자가)	전세	-.113	-.146	-.042
		월세	-.962 ***	-.454	.105
		무상거주	-.065	-.573	-.485 *
가 계 재 무변수	가계소득규모		.000 *	.000	-.000
	금융자산규모		.000 ***	.000 ***	-.000 *
	실물자산규모		.000	.000	.000
심리적 변수	저축목적 (기준:기타)	자녀교육	.306	.096	.129
		주택마련	.241	.154	.077
		부채상환	.021	-.206	.022
		관혼상제비	.346	.231	.150
		노후대비	.267	.356 *	.252
	투자계획기간 (기준:계획없음 및 모르겠음)	1년 미만	.883 *	.519	-.076
		1년-3년 미만	.930 *	.413	-.152
		3년-10년 미만	.993 **	.417	-.158
		10년 이상	.999 *	.460	-.147
	3년 후 경기전망 (기준:보통)	낙관	.185	.128	.055
		비관	-.034	-.118	-.103
	3년 후 부동산가격전망 (기준:보통)	낙관	.123	-.083	-.031
		비관	.275 *	-.081	-.076
	3년 후 금리전망 (기준:보통)	낙관	.071	-.074	-.101
		비관	-.033	-.070	-.043
	3년 후 주가전망 (기준:보통)	낙관	.153	.112	.099
		비관	-.283	.168	.093
	3년 후 소득전망 (기준:보통)	낙관	-.240 *	-.075	-.117
		비관	.283	.076	.032
	위험성향		.355 ***	.121 **	.077 *
상수			-2.644 ***	4.527 ***	-1.512 **
모형 카이제곱 / Log Likelihood			353.481 ***	-1652.976	-1352.968
Nagelkerke R ²			.185	-	-

*** p<.001, ** p<.01, * p<.05